

κόκκος 12

2019 DEC VOL. 213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



제 36 대 '하다' 총학생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남유진(오른쪽) 총학회장과 박대수 부회장.(관련기사 3면)

학교를 돋는 손길들, 훈훈한 사연과 함께 이어져…

'연말, 학교의 곳간 더 채워져야..' 간곡히 요청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이다. 연말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눔을 우리대학에 밝혀주는 고귀한 동역자들의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 머나먼 미국에 사는 동문과 개인, 교회와 기관 등에서, "성서대학은 강건히 지속되어야 할 대학"이라고 말한다. 학교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물질과 기도로 용기를 보내 준 따뜻한 손길들…

기부 및 후원 문의

* **국내** (월 1 만원부터)
대외협력실 : 02-950-5513

* **미국** (월 10 달러부터)
KOREAN BIBLE FUNDS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직접입금 구좌 :
KOREAN BIBLE FUNDS
Wells Fargo Bank
Account Number: 3840483592

▲ **조영자 동문** :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조영자 동문(12회)이 미화 1만 달러(1,150여만 원)를 후원해 주었다. 조 동문은 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성서대학 1세대이다. 그는 "설립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강건히 지속되어야 할 대학"임을 강조했다. "모교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하고 마음을 움직여 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말하였다.

▲ **김조자 교수** : 간호학과 김조자 교수가 1천만 원을 기부하며 학교사랑의 소중한 마음을 공동체 안에 보여줬다. 김 교수는 학교가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며 안타깝다. 우리대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이 전하고 실천해 온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소중한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김 교수의 1천만 원 후원은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오 에스더 박사** : 미국 존스 흉킨스 의과대학 교수인 오 에스더 박사가 미화 6천 달러(7백여만 원)를 기탁했다. 오 에스더 박사는 학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 차녀 강혜정 사모의 장녀이다. "외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이 살아있는 성서대학은 분신과도 같다. 영혼을 깨우는 사역이 활성화 되기 바란다"고 소망했다. 오 박사는 외할아버지의 뜻을 기려 해마다 3,000 달러 이상씩 후원해 왔다.

▲ **광염교회** : 우리와 이웃한 광염교회(조현삼 목사)가 로고스홀 무대 상단용 스크린 교체를 전격 후원한다. 조 목사는 "성서대학은 사역자 양육의 자존심으로 불릴 만큼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해 온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말했다. 광염교회는 해상도 낮은 현재의 램프식 모니터를 화질이 선명한 120인치 LED 모니터로, 음향 지휘용 아날로그 콘솔박스 디지털 시스템화 및 무대용 플로어박스까지 책임지게 된다. 비용은 4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하나은행 노원점** : 하나은행 노원역점(지점장 박성숙)이 우리대학 학우 5명에게 1백만 원씩 모두 장학금 5백만 원을 전했다. 박성숙 지점장은 "이 장학금이 학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이를 통해 성서대 졸업생으로써 국가에 헌신하는 귀한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며 격려해 주었다. 수혜자는 최다예(사복3), 손보권, 강은혜(성서1), 김수연(영보1), 엄주현(간호1) 학우이다.

대외협력실은 현재 우리대학 재정 규모에서 외부 후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매월 980여명의 개인과 기업 14곳 교회 및 단체 55여 기관에서 월평균 7천여만 원이 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세라면 연간 후원 목표금액 10억 원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김중완 행정본부장은 "현재 외부적 요인 등이 겹쳐 심각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어가는 곳간을 살펴 사랑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재정 당사자로써 참으로 눈물겹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오직 한 길만을 달려온 우리대학에 성서인 모두가 적은 현금이라도 보내 주시기를 염원한다"고 호소하였다.

'낮아짐과 사랑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4 학년 주관예배, 은혜와 성숙한 동질감 안겨



▲ 김희정 학우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졸업을 앞둔 4 학년 학우들이 채플을 진행해가는 '4 학년 주관예배' 가 18 일부터 29 일까지 2 주간 이어졌다. 첫 날, 이정혁 학우 설교, 양승용 (사복) 학우 간증과 29 일 최준혁 학우 설교까지 이들이 주관한 예배가 평소와는 또 다른 감동과 은혜를 안겨주었다.

최준혁 학우는 '훈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의 훈수에는 낮아짐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제자의 발을 몸소 씻겨주며 섬겨준 모습은 제자들에게 낮아짐의 훈수를 보인 것이며 이어진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그 자체를 보여준 훈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 모두 훈수를 받고 산다. 학교에서 배운 4 년간 어떤 훈수를 받았고 이를 지켜가려고 하는가? 낮아짐과 사랑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삶은 최고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연 학우는 성서대학에서의 삶의 변화를 진솔하게 간증하였다. "사정에 의해 국어교사의 꿈을 접는 건 아픔이었다. 신앙이 없었던 나는 학과 적성이 안 맞아 방황하였고 타 대학 편입을 위해 휴학 하였다. 그러나 이도 저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복학하게 되었다. 돌아 온 학교에서 나에겐 종학과 학우들의 섬김이 보였고, 기도쪽지가 새삼스러웠고, 교수님들의 따뜻한 사랑도 감동이었다. 나는 내가 해 보려던 자기주도적 삶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맡겼다. 내 삶 곳곳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가 넘친다. 그동안 지켜봐 준 소중한 동기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간증 및 설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8 일 (월) : ▲양승용 (사복) ▲이정혁 '귀를 기울여라' (왕상 19:1~12)
- 19 일 (화) : ▲방민지 (영보) ▲박미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시 139:1~24)
- 20 일 (수) : ▲양연주 (간호) ▲김영우 '동사원형' (고전 3:1~9)
- 21 일 (목) : ▲서 융 (사복) ▲정소연 '지혜롭고 순결하라' (마 10:16~23)
- 22 일 (금) : ▲권은지 (영보) ▲김대진 '교회를 부탁해' (마 16:13~20)
- 25 일 (월) : ▲이주연 (간호) ▲복영광 '거룩한 조연' (요 3:22~30)
- 26 일 (화) : ▲김혜선 (영보) ▲김희정 '살아내시겠습니까?' (수 24:14~15)
- 27 일 (수) : ▲조수민 (사복) ▲조창휘 '예배가 소망됨을' (시 42:1~11)
- 28 일 (목) : ▲최지나 (영보) ▲이해렬 '원망하는 자들에게 고함' (출 15:22~27)
- 29 일 (금) : ▲기상혁 (간호) ▲최준혁 '훈수' (요 13:1~17)

2 학기 성경졸업고사 69.4% 합격

2019 학년도 2 학기 성경졸업고사가 9 일 오전 10 시 로고스홀에서 치러졌다. 253명이 신청, 이들 중 235명이 응시(92.9%)하였는데 응시자 중 163명이(69.4%) 합격하였다. 마지막 시험인 4 학년 응시자 26 명 중에서는 23 명 (88.5%)이 합격권에 안착해 기쁨을 맛보았다.

전년도 2 학기 성경졸업고사 합격률은 65.4% 이었고 학년별로는 3 학년 77.2%, 1 학년 68.9%, 2 학년 50% 를 기록하였다.

제 36 대 총학회장단 선거

회장 남유진, 부회장 박대주 선출



▲ 남유진 회장 (오른쪽) 과 박대주 부회장

11 월 27 일 총학회장 선거에서 제 36 대 총학생회장에 남유진 (성서 3), 부회장 박 대주 (컴소 2) 학우가 선출되었다 .

총 유권자 992 명 가운데 597 명 (60.2 %) 의 학우가 선거에 참여하였고 그 중 514 명 의 학우가 단일후보로 출마한 이들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 찬성률은 86.1 % 다 .

남유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 ' 하다 ' 총학은 학우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에 항상 귀 를 기울이는 총학이 될 것을 약속한다 .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헌신과 노력을 다하겠 다 " 고 말했다 . 그는 " 이를 위해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 " 고 협 조를 당부하였다 .

남 회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이 된 박대주 학우는 컴소학과 학우로서 회장단 에 진출한 첫 케이스이다 . 그는 우리가 밝힌 공약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36 대 총학생회는 ' 하다 ' 총학명을 사용하게 된다 . ' 하다 ' 총학은 이번 공약에서 학 교생활 ' 편하다 ', 함께 ' 소통하다 ', 학업에 ' 집중하다 ', 하나님께 ' 예배하다 ' 의 4 가지 ' 하다 ' 를 지향하고 있다 .

학부모기도회 신임회장 신영옥 씨

' 성서공동체의 비전과 사역 돋겠다 '



▲ 신영옥 회장

2019 년도 마지막 학부모기도회가 21 일 복음관 2 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는 2020 년도 학부모기도회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에 신영옥 (조은진 영보 2) 씨, 부회장에 최유미 (이동규 성서 2) 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

신임 신영옥 회장은 "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 학교와 학생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빛내주실 회원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성서대학 을 위해 기도로 힘껏 섬기겠다 " 고 말했다 .

올 한해 학부모기도회 회장으로 헌신한 장인순 (임주영 성서 4) 회장은 " 학부모들의 협조가 더해져 소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 " 며 모두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

회장 선출에 앞서 김은호 부총장은 주님 나라사역에 동참을 보여준 학부모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 감사와 회개, 성서공동체 모든 구성원, 국가 발전 및 학부모기도회를 향해 뜨거운 기도시간을 가졌다 .

영보졸업예정자 45 명 , 발전기금 115 구좌

학교발전을 위해 뜻 모아 학교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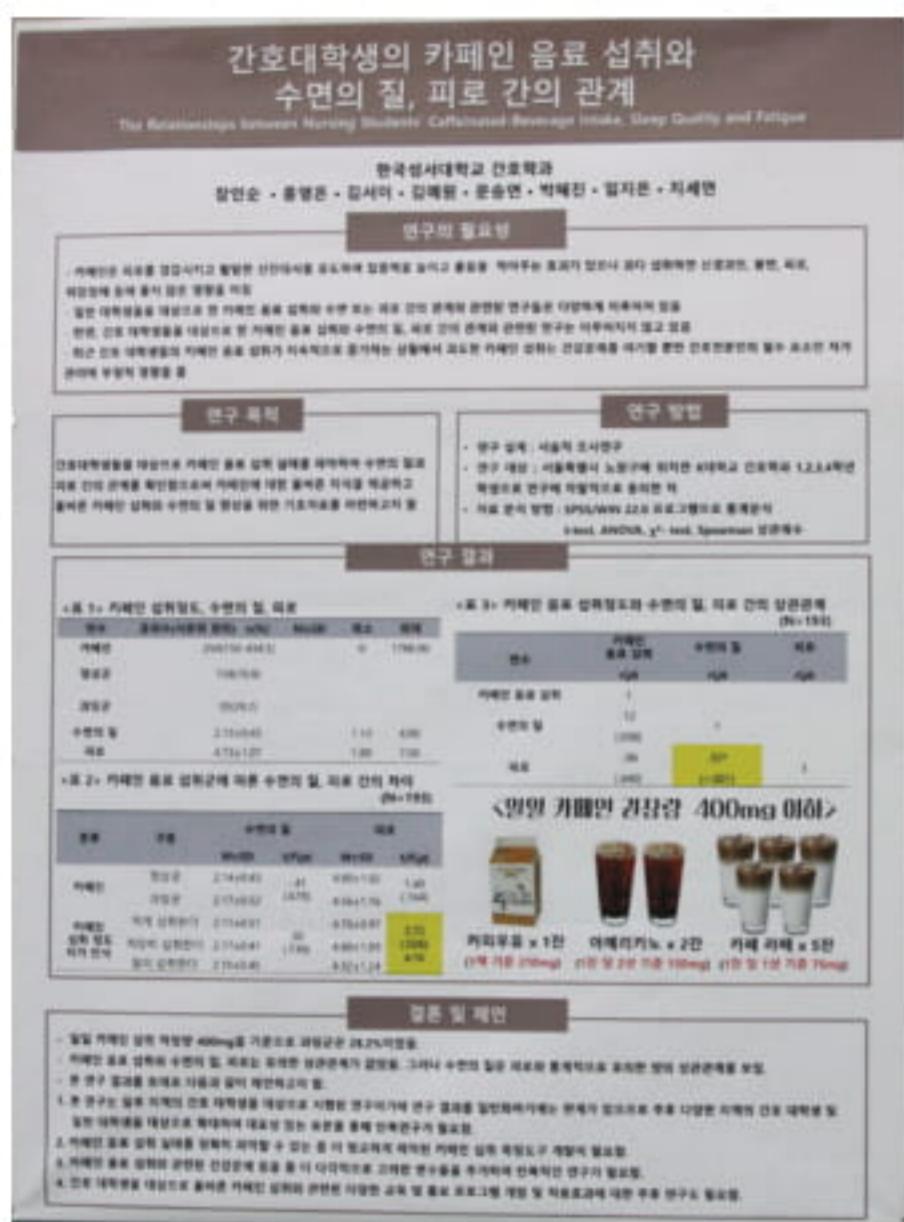
▲ 강우정 총장에게 약정구좌를 전하는 김혜선 영 보학과 대표 (왼쪽 대외협력실 전영호 직원 , 강우정 총장, 김혜선 대표, 김형미 학과장)

영유아보육학과 졸업예정자 45 명이 후배 사랑과 학교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강우정 총장에게 약정서 115 구좌를 전달하였다 . 김혜선 학과대표는 " 부족한 우리를 학습과 사랑을 다해 성장시켜 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동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후배와 학교발전을 위해 소중한 뜻을 모으게 됐다 " 고 말했다 . 영보 학우들의 약정 115 구좌는 연 1 천 4 백만 원에 달한다 .

김형미 영보학과장도 후배 사랑의 거룩한 전통을 실천해 준 학우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였다 . 영보 졸업자들은 매해 100 % 취업을 보여줄 만큼 보육업계에서 역량과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 .

제 8 회 간호학술제

최우수논문 '간호대학생의 미세먼지 ...'



▲ 우수상을 수상한 연구포스터

간호학과 제 8 회 간호학술제가 21 일 오후 3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학술제는 4 편의 논문 발표와 논문 총평, 시상식 순서로 이어졌다. 이번 학술제는 3 학년 학우 49 명 전체가 7 명씩 팀을 결성, 논문 4 편과 포스터 3 편을 제출했다.

학술제의 최우수논문은 황혜선 학우 팀이 발표한 '간호대학생의 미세먼지 인식수준과 자가간호역량이 미세먼지 관련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최은희 교수 지도)이 선정돼 영광을 차지했다. 김소희 학우 팀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고미숙 교수 지도)가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연구포스터에는 박희진 학우 팀의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 피로,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2 학년 김현지 학우팀의 '내 가족을 위한 약과 음식 사용법' 등 총 5 개 팀이 우수 보건 포스터로 선정되었다.

김조자 교수는 학술제 논문 총평을 통해 "학우들의 논문은 타 대학 석사수준"이라고 극찬하고 "흠 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연구와 발표"라고 심사평을 말했다. 김 교수는 "학우들의 논문을 모아 논문집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학우들이 "논문발표를 준비하며 실력을 겸비한 복음전도자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혼신과 사랑을 다 쏟아준 전공교수 모두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고 하였다. 유정선 일립교육부장은 "복음의 역군으로 영혼과 생명을 치유해주는 주님의 천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했다. 양한아 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제 1 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최우수상 박성현 (성서 1) 학우

프레젠테이션 – 취업과정의 '필수'



▲ 박성현 학우

기초교육원(원장 이한영 교수)이 주최한 '제 1 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가 예선과 본선과정을 거쳐 최종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박성현(성서 1) 학우에게 돌아갔다. 주제는 '2019년도 태플릿 PC 판매량 1위는 무엇일까요?'이다. 우수상은 이정우, 이진영, 최은서(간호 2) 팀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4개 팀이며 천소영(사복 1), 한수윤, 박윤미(간호 1), 여성찬(간호 3) 학우가 차지했다. 29일 채플 후 시상식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박성현 학우가 이미지와 디자인의 적절한 배합, 시각적 호소력은 물론 핵심을 뚫는 간명함과 논리적 접근 등에서 차별화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박 학우는 "평소 프레젠테이션 작성을 일상에서 사용해 왔었다. 과목 수강과 취창업특강을 계기로 약점 보완 후 집중하며 나만의 스킬을 완성한게 좋은 결과를 낳았으며"며 기쁨을 표시하였다.

이한영 기초교육원 원장은 "프레젠테이션의 활용도는 큰 폭으로 증가중이라며 스킬을 증진시켜서 능력있는 복음전도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기업 중 70%가 면접시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면접관들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 문제 핵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문제 관련 지식의 압축 및 이를 마케팅해 가는 창의적인 기획력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로 삼고 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경진에는 전체 26개 팀이 참여했으며 수상작은 6개 팀이 선정됐다. 부상은 최우수상(20만), 우수상(10만), 장려상(5만) 마일리지가 수여되었다.

“총학이 제기한 고충 당연하고 정당하다”

총장 – 총학 간담회, 강 총장 “최선을 다하겠다”



▲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 학년도 총장 – 총학 간담회가 20 일 오후 7 시 복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총학은 시설과 학사분야 그리고 기숙사내 문제 등 11 개 항목을 상세히 정리하여 사진 자료까지 제시하며 학교가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시설 면에서는 도서관 장애인 출입게이트가 좁고 불편하다. 풋살장 그물 보수와 농구장 바닥면 보수도 긴급하다. 체력단련실의 각종 운동기구도 노후된 상태라 교체가 필요하다 등을 지적하였다. 답변에 나선 양희정 사무팀장은 도서관 출입게이트와 농구장 보수 등은 재정 형편을 살펴 접점을 찾겠다. 풋살장은 일부 보수되었고 체력단련실도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학사분야는 복수전공자의 시간표 조율 및 커리큘럼 변경 문제, 학과 조교의 잣은 교체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실습 및 비교과 활동 수업인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유미나 교무팀장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학과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파생된다며 커리큘럼의 대체 과목 등 제시된 학사 고충을 교무팀이 적극 조율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에 관해 총학은 각 방별 (도어락 설치) 보안이 염려 된다는 점과 일부 시설 (의자, 신발장, 메트리스)의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경만 기획실장은 기숙사의 보안강화는 당연하다. 외부 계단용 CCTV 가 방학기간 설치될 것이며 도어락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정 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학이 제기한 고충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총장으로서 이런 불만을 갖게 한 점에 대해 먼저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안의 경종과 예산상황을 고려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총장은 총장 – 총학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총장과의 대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시간을 이용하여 소통의 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제 5 회 도서관의 날 행사

독서 특강, “지혜와 성찰의 공간”



▲ 최은희 교수가 독서에 대해 특강중이다.

‘제 5 회 도서관의 날’ 행사가 15 일 오후 6 시부터 11 시까지 도서관 3 층에서 진행되었다. 45 명의 학우가 참여하였으며 최은희 (간호학) 교수의 독서특강, 책읽기 및 스토리텔링 발표, 레크리에이션과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은희 교수는 “독서란, 자아를 찾게 해 주는 지혜와 성찰의 공간이다. 원하는 책을 목차로 확인하고 읽기의 일상화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짧더라도 자기만의 서평도 작성해 보기 등의 노하우도 들려 주었다.

학우들은 '소년이 온다' 등 선정된 10 권의 도서를 읽거나 자유롭게 선택한 책을 읽는 책읽기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책 내용을 함축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 전개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였다.

주최팀은 독서퀴즈를 진행시키며 분위기를 띄웠고 황찬범 (사복 4) 학우가 레크리에이션으로 참석자들의 흥과 끼를 선율 속에 새겨 주는 시간을 가졌다. 학우들은 독서라는 공동의 주제에 함께 공감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 좋았다. 지식과 학습 축적에 필요한 효과적인 팁도 배웠다며 웃음을 드러냈다.

‘수시합격생 축하’ 삼겹살 파티

재학생과 교수들, 삼겹살 구워주며 맛있는 만남의 시간



▲ 예비 제자들의 점심용 삼겹살을 굽고 있는 성서학교 교수들(왼쪽 박성환, 조현진, 김웅기 교수)

성서학과가 30일 천마홀에서 2020년 성서학과 수시합격자를 초청, 학교 소개와 만찬 및 교수, 선배와의 만남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만남에는 예비 합격자 25명이 자리하였으며 재학생 24명, 전공교수 12명 전원이 참석하였다.

김은호 부총장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막 10:17~22) 제목의 말씀에서 학우 여러분은 비전과 꿈을 갖고 소명에 따라 이곳에 왔다. 결단의 이 길은 좁고 힘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의 날선 기개와 꿈을 가진 여러분은 가장 값진 영광의 길에 들어선 동역자들이다. 부르심에 순종해 십자가 영광의 여정에 함께 나가자며 격려하였다.

전공 교수와 재학생들은 합격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팔을 직접 걷었다. 밀알관 세 계지도광장에 바비큐 숯불장을 마련해 놓고 맛좋은 삼겹살을 쉴 새 없이 구워냈다. 사랑과 정성이 깃든 삼겹살 덕분에 테이블마다 분위기가 금방 훈훈해졌다. 합격자들은 비전과 선배들의 진로 및 동아리, 기숙사와 장학금, 학생회 활동 등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예비대학생 행보를 이어갔다.

수시합격생 이호빈 학우는 "선배들과 교수들마다 섬김과 감사의 모습 일색이라서 보기 좋았다. 미리 배려해 줘 고맙다"며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고은수(2) 학우는 예비 후배들을 대하니 웬지 기뻤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후배들의 음식을 부지런히 챙겼다.

박태수 성서학과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민감한 시대에 와 있다. 이번 초청은 예비 합격자들과 관계형성을 통해 학과의 경쟁력을 높여줄 소중한 촛불이 될 것이다. 적극 호응해 준 교수님들과 학우 모두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은호 교수 「성서히브리어 본문과 문맥」 출간



성서히브리어
본문과 문맥

▲ 김은호 교수 신간

김은호 교수가 히브리어 원문의 이해와 독해력을 키워 줄 「성서히브리어 본문과 문맥」을 출간하였다.

히브리어 기초 과정을 마스터 한 학습자가 히브리어 성경(BHC)을 펼치는 순간 당혹감에 휩싸인다. 모음은 없고 약자의 과다 사용 및 아람어의 벽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 도서가 문법 위주의 단편적 문장 형식을 취해 왔다면 본서는 문맥 간 흐름을 비교하여 해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토록 어휘 중심과 읽기, 주해 등에 초점을 맞췄다.

히브리어 성경(BHC) 분석, 롯기의 해석, 구약 및 시편의 본문과 문맥 외에 어휘록 등이 수록돼 있다.

「성서히브리어 본문과 문맥」 김은호 / 예영 B&P / 280p/ 15,000 원

대학혁신사업 , LO.CO. 프로젝트 사업 보고회

‘도담여행단’ 등 6 개 팀 ,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



▲ 도담여행단이 성과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

대학혁신사업단 (단장 김은호 부총장) 이 진행해 온 「지역사회 임팩트 강화 사업 : LO.CO.(Local Community) 프로젝트」 성과보고회가 27 일 오후 천마홀에서 있었다.

혁신사업단은 지난 5 월 재학생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LO.CO) 공모전을 추진 , 6 개 팀이 최종 선정돼 현재까지 사업을 펼쳐왔다.

송승현 학우 등 8 명의 ' 도담여행단 ' 팀은 수택초등학교 (구리시) 에서 ' 저소득층 아동 문화격차 해소 여행 멘토링 ' 을 진행했다. 해당 어린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여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 . 선정된 저소득층 고학년 9 명의 어린이들은 인사동과 유적지 및 서울 곳곳을 누비며 시야를 넓혔다. 멘토링을 통해 내면도 나누고 삶의 활력과 긍정 ,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을 강화시켰다는 보고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보고회는 ' 다이나믹 청춘 기획단 ' 과 ' 선생님은 쉬고 싶단다 ', ' TAS ' 를 비롯해 ' 오예스 ' 와 ' 이경민 , 신민철 ' 팀이 참여했다. 이날 6 개 팀 38 명의 학우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였고 더불어 한국성서대학교 이미지까지 확산시켜 주었다 .

김은호 단장은 격려사에서 " 우리 학우들이 어려운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가 삶을 나누고 보듬으며 주의 사랑을 실천했다 . 이것은 대단한 감동이다 " 라며 참여한 학우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LO.CO. 사업을 진행한 6 개 팀에게는 팀당 최대 5 백여만 원의 사업비 , 각 1 백 만 원의 장학금과 20 만 마일리지가 제공되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갈멜관 옥탑에 적힌 말씀 , 백병원 환우에게 희망을 전했다



▲ 갈멜관 옥탑에 새겨진 성경말씀

지난 10 월 하순경 할머니 한 분이 경비실 김봉재 직원에게 " 학교 옥탑에 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 라고 물었다 . " 학교 옥탑에 성경말씀이 ? "... 처음 듣는 이야기라 당황스러웠다 . 사연은 이러했다 .

전라도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딸이 지난 9 월 상계백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 큰 수술을 받았고 치료차 한 달간 9 층에 머물러야 했다 .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던 때에 딸은 병원 복도를 걷다가 우리대학 옥탑에 써 놓은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다 .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라는 확신과 뜨거운 기운이 딸의 몸 안으로 차올랐다 . 그녀는 크리스천이었던 것이다 . 그날 본 강렬한 말씀 덕분에 남은 치료과정을 잘 견딜수 있었다 . 그는 너무도 감사했다 . 딸은 퇴원 후 말씀 출처를 찾고 싶었으나 찾지 못했다 . 결국 중계동에 사는 엄마에게 부탁했고 엄마가 학교를 찾아온 것이다 . 김봉재 씨는 할머니와 백병원 9 층 복도 끝에서 말씀을 찾았다 . 갈멜관 옥탑의 말씀은 출애굽기 15 장 26 절이다 .

이 말씀은 작년 8 월 성서대학교가 갈멜관 106 호 리모델링 과정에서 완성하였다 . 최정권 목사는 상계백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큼지막한 고딕체로 옥탑에 새겼다 .

딸은 현재 전라도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생활중이다 . 엄마를 통해 학교에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해왔다 .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 출 15:26

2019 사복인의 밤 행사 '샤방사밤'



▲ 신문지로 만든 의상을 입은 모델이 런웨이를 걷고 있다.

2019 사복인의 밤 행사 '샤방사밤'이 하이학회(학회장 이인재) 주최로 7일 일립관 101호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만찬 후 1부 스타킹 & 스토킹과 2부 드림하이 순서로 펼쳐졌다.

1부 스타킹 & 스토킹에서 학우와 동문들은 조별로 모델을 선정한 후 의상 제작에 머리를 맞댔다. 소재는 신문지, 창의성이 가미된 의상을 모델이 입고 레드카펫에서 런웨이를 가졌는데 기발함과 위트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났다. 선후배가 질문하는 대화의 시간과 팀별 영상을 배팅해 보는 순서도 흥미롭게 진행됐다. 2부 드림하이에서는 6개 조별로 색다른 매력을 뽐낸 장기자랑이 로고스홀을 함성에 젖게 하였다. 영화티켓 이벤트가 관심을 끌었고 경품추첨으로 풍성함도 안겼다. Q&A 순서에서는 전공 관련된 내용 등으로 현실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다.

동문과 재학생 및 전공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선후배 모두에게 긍지와 소속감은 물론 멋진 추억까지 안겨 주었다.

흥과 끼가 발휘된 축제의 장 '영보인의 밤'



▲ 4학년 학우 전체가 합창하고 있다.

영유아보육학과의 14회 '영보인의 밤' 행사가 꿈빛학회(학회장 이수정) 주최로 22일 저녁 7시 로고스홀에서 펼쳐졌다.

영화 관람을 연상케하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수화, 댄스, 합창과 워십팀의 활기찬 공연이 무대를 장식해 주었다. 학우들은 먹방을 활용한 토크 패러디와 뮤지컬 맘마미아도 재현해 냈고 MC의 토크콘서트, 댄스팀과 셀렙파이브의 열정적인 연기, 블랙라이트의 암전 속 율동도 색다른 볼거리를 전했다. 4학년 학우 49명 전체가 4년의 시간 여정을 합창 가사에 담아 부르며 뭉클함을 줬고 교수들은 기념 반지로 사제 간의 정을 나누었다.

이수정 학회장과 문예린 부학회장의 센스있는 진행이 더해져 영보인의 밤 무대가 더욱 풍성해졌다.

우정과 배려 담긴 감동의 시간 '컴소인의 밤'



▲ 순서를 끝마친 컴소인들의 모습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동문 선후배가 함께하는 2019 '컴소인의 밤' 행사가 14일 노원 커넬어반에서 컴소학회(학회장 안기환) 주최로 진행되었다. 식사와 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을 통해 KBU 컴소의 공동체를 다져가는 뜻 깊은 자리였다.

만찬 후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에서 컴소인의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단어 한글자씩을 PPT에 삽입, 문장 형태를 구성해 가는 '소영이 게임'이 감각적인 센스를 발휘시키며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정해덕 교수의 허밍으로 부르는 노래 제목 맞추기도 모두를 흥겹게 하였다. 장기자랑에서는 내재된 감정선을 노래에 담아 전해 줬고 공감과 감사함의 박수가 넘쳤다. 웃음꽃 속에 행운권 추첨이 더해졌고 에어 팟과 무선 키보드 등의 푸짐한 행운을 담아 갈 수 있었다.

참석한 동문과 재학생들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정과 배려가 담긴 감동의 자리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총장의 편지
총장 강우정

총장들의 반란(反亂)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11조 7항에는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연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학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등록금 인상은 꿈도 못 꾸어 왔습니다. 그러기를 10여년. 대학은 그야말로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총장들의 인상 결의안은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사총협이 무얼하던 관심이 없던 언론들이 갑자기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논조는 대학이 오죽했으면 그런 과감한 결의를 했겠나라는 우호적인 반응과 함께 과연 사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이겨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주조를 이루었지요.

저도 그런 의문에 동의합니다. 153개 사립대학의 이해는 각각 다릅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중·소규모 대학과 대규모 대학,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등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등록금 인상 이슈도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우리 대학 포함)들은 강공(强攻)으로만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총장 모임에서 어느 총장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 왔어요. “성서대는 등록금 올릴 겁니까?” 총회 때 인상안을 동의했던 저에게 약간은 짓궂은 질문이었습니다. “갈 데까지 가 보아야지요. 정말 재정지원을 안 한다면 그 때 재고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는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학우들이 동의해 준다면 찬스는 있다고 봅니다. 등록금 인상은 학교 내 등록금심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등심위에는 총학 대표가 들어와 있고 이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학우들이 ‘대학의 자율’이라는 원칙을 살려 내려는 총장회의의 결의를 지지해 준다면 이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 컬럼
김지성 직원(평가감사실)

벌거벗고 운동장을 뛴 사연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의 청춘(青春)은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20대에 걸치는 시절이라 하니 30대의 저는 청축인 듯 아닌 듯 합니다. 새싹은 사물의 근원이 될 새로운 시초를 비유합니다. 그러니 청춘(青春)이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정황과는 관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청축인가 봅니다.

저에게도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청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새내기 시절, 축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대학 등록금을 학교 운동장 대여금으로 다 탕진해 버리곤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어느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탕자 같은 아들도 받아주던데 설마 탕자보다 나은 저를 우리 부모님이 안 받아 주실 리 없다?’ 하는 깊은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수업 마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새벽 1시 넘도록 뜻살 시합을 즐기곤 했습니다. 청춘이던 우리는 뜻살 시합에서 진 팀은 실오라기 한 장 걸치지 않은 채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내기를 하였습니다. 원죄(原罪) 이전의 자유 상태로 돌아가는 거룩한 내기?(a holy game) 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죄인이 된 인간의 본성은 원죄(原罪)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도, 동료도, 팀도 아닌 오직 나만 살려는 고대의 비겁한 기브온 주민처럼 상대진영으로 거침없이 공을 차면서 오직 승리에만 집착했습니다. 30분 후, 고요한 비명소리가 운동장에.... 그렇습니다. 우리팀이 패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어둠과 공허함만 남은 운동장에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의 그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귓불을 훔치고 얼굴들은 불그스름해진 채 겁 없이 운동장을 뛰었던 것입니다.

청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아마도 저는 대학시절 거짓 없는 청춘을 보낸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삶에서도 숨김없는 솔직함으로 저의 청춘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교수 컬럼
임지영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외래교수 컬럼
정순례 교수(심리 검사)

좌충우돌 동영상 제작기

동영상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교수 포트폴리오 사업을 선착순 1 과목만 받겠다는 교수학습센터의 메일이 왔다. 나보다 발 빠른 교수님이 계실 것을 기대하며 답장을 천천히 보냈다. 그런데 내가 2 등으로 신청하였고 두 과목을 받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신청자가 많을 텐데 내가 두 번째라고? 내 메일이 빠른 건가, 아님 내 컴퓨터가? 인터넷 속도일까! 천천히 할 걸 하는 후회가 곧 바로 밀려왔다.

동영상 녹음이라야 1 분도 안 되는 컴소인의 밤 초대 영상에 출연해 본 나로서는 막막했다. 일단 남 박사님의 도움으로 컴퓨터 분야 K_MOOK 강의영상과 유튜브도 찾아봤다. 핵심은 인트로는 필요 없다. 짧아야 한다. 재미없는 이론 강의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20 분짜리 한 개를 만들었다. 문제는 내 목소리, 마이크도 못 뚫는 내 작은 목소리가 스피커 없는 일반 마이크에 음성녹음이 잘 나올 리 없다. 그래도 학생들이 높여 들으면 될 것이고, 어느 유튜버처럼 실습프로그램 옆 메모장에 명령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2~3 개를 더 만들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필요 정보를 유튜브에서 잘 찾아내는 관련 전문가들 아닌가. “교수님, 소리를 키우면 치직 거려요. 콘텐츠 마이크를 쓰면 소리가 더 크게 녹음 된 대요.” “소리를 자막으로 자동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수님, 얼굴도 나오게 해 보세요.” 첫 번째 동영상을 본 학생들의 피드백이 이어졌다. 자막 프로그램은 전공 용어에 영어가 많아 쓰기 힘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콘텐츠 마이크도 샀다. 초보 유튜버로부터 동영상 편집용 프리웨어인 다빈치프로그램을 추천받아 타이틀 변경과 자막까지 넣었다. 핵심자막만 넣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됐다. 그 결과 학생들로부터 좋았다는 반응과 컨설팅 선생님도 길이와 자막이 적절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처음 만든 동영상 강의, 힘들었지만 성취감은 그만큼 컸다. 내년도 동영상 강의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수작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두려우십니까?

해마다 11 월초가 되면 대학 수능고사를 보는 학생 가정에서는 마음을 졸이며 주위 분들에게 기도부탁을 하게 된다. 수능고사 당사자나, 지켜보는 학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혹시나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부정적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수록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커지며 감정의 흥수 속에 빠져버린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평가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렵다. 몸과 마음의 떨림을 견디기 위해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던 산골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아랫마을 전도사 님 댁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 나는 몇 명의 아이들과 예배에 참석하는 걸 좋아했다. 부모님 몰래 개구멍 울타리를 빠져 나와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가 끝나면 밖은 캄캄한 밤이다. 어른들도 지나기 두려운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성황당을 통과해야 했다. 그때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 찬송가를 불렀다.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내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1년 정도 지났을까. 전도사님이 서울로 떠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아니 잊은 줄 알았다. 내가 어른이 되고 주님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계셨음을 확인시켜줬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내게 속삭여 주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 (사 41: 10).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시 121:3).

수능고사를 본 학생과 학부모님!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잡아 도와주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려고 기다리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떨림을 멈추고 믿음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몸은 거기 있어도

어제 토요일 결혼 주례를 맡아 강남 어느 호텔 웨딩홀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웨딩홀도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일층 이층은 손님들로 가득하였고 예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발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단 옆의 주례석에 앉아 있는 제 마음은 우리 교회 주방에 가 있었습니다. 혀 안 저쪽에서 왜 먹다가 그만 두었느냐는 아우성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두꺼운 제 종아리처럼 희고 큼지막한 무들이 흙에서 얹는 더러움을 씻어내고 다라이 한 가득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무를 크게 둘로 잘라내고 이를 다시 둘로 베어서 4 개를 만들어 날카로운 채에 갈아내면 무채색의 물기 먹은 무채가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걸 봅니다. 바다에서 건진 젓갈과 빨간 고춧가루를 버무려 부으면 스케치 위에 그려진 선을 따라 밀려가는 물감처럼 무채색의 무채가 붉게 물들어 갑니다. 소금에 절인 채 네 조각으로 나누어진 채, 자신의 만남을 기다리는 배추의 은밀한 속을 드러내고 그 안에 배춧속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노랗게 보이는 잎을 하나 뜯어 싸먹는데 ... 지금 제 몸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식 마치고 유니폼을 입은 이들이 날라다 주는 음식 위로 솥에서 막 건져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가 눈에 어립니다. 이 시간이면 둠성둠성 잘린 돼지 편육에 김칫속을 넣어 먹고 있었을 텐데 ... 매운맛 배춧속과 돼지비계서 나오는 뭉클한 기름이 이빨 사이를 지나 목으로 넘어갈 텐데 ... 접시 위 손바닥 절반도 안 되는 스테이크와 교회 부엌에서 먹었을 도마 위의 큼직한 돼지고기가 비교됩니다. “아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

결혼식 마치고 사람들로 북적되던 텅 빈 부엌을 보고 오늘 돼지고기 맛있었나? 교역자들은 저마다 맛있었다고 소리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겠나? 이 서운함을 ... 그날 그 시간에 먹어야 하는 맛을 ...

김장이 끝났습니다. 금, 토요일 참 많은 성도가 오셔서 자기 일처럼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좋아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제의 부엌에서 나는 비린 젓갈과 배춧속 그리고 더운 김이 나는 돼지고기가 그립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날 주례는 안 맡으렵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65

소 금 _ 류시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흔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



<http://cafe.daum.net/kcdance/2Rbe/662>

12월, 비가 내린다. 누가 하늘에 상처를 냈는지 하염없이 비가 내린다. 아픈 비가 바다에 쌓여 뒤척이며 헝클어진다. 아픔은 온도를 내려 옷깃을 묶고 빗장도 걸었다.

12월, 눈이 내린다. 누가 하늘을 위로했는지 하염없이 눈이 내린다. 상처도 감싸주고 아픔도 감싸주고 눈물도 감싸주며 눈이 내린다. 비로 넘실대는 바다를 덮어주며 눈이 쌓인다.

12월, 소금이 내린다. 눈 덮인 바다가 우리에게 내린다. 깨끗지 못한 우리를 위해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염없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린다.



▲ 리모델링을 거쳐 산뜻하게 단장된 문

어린이집이 바뀌었어요!

지난 8월과 11월에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유아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보육실 및 화장실 문 교체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기획하고 공사에 임하였다. 구청으로부터 공사비용의 일부인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아 진행하여 영유아의 취향과 안전성을 반영시킨 공사과정을 펼쳐갈 수 있게 되었다.

공사 후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은 새로운 화장실과 문들을 보며 더 안락하고 편안해졌고, 화장실과 어린이집 문까지 예뻐졌다며 기쁨을 나타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소망반 교사 안나영]



▲ 월계마음쉼터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열연하고 있다.

노원구주민복지협의회 연합공연 '뮤직 스토리'

지난 6일 북서울미술관에서는 노원구주민복지협의회 주최 연합공연 '뮤직 스토리'가 진행되었다. 공연은 노원구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참여하며 식전공연 및 실무자 공연 등 다양한 컨텐츠가 더해져서 흥미와 유쾌함을 전하는 시간으로 펼쳐졌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월계마음쉼터 소속 10명이 '주인공은 나야나', '언제 벌써' 등 두 곡을 합창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였다. 첫 번째 순서자여서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우렁찬 구호와 멋진 노래 및 율동을 내보여 공연장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노익장과 열정을 인정하고 활력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번 연합행사가 사업 참여자 모두를 단합시킨 값진 시간이 됐다. [복지서비스팀 사회복지사 원미주]



▲ 질을 고래실마을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유아들

'질을 고래실마을' 체험

지난 21일 5~7세 유아들은 양평에 위치한 '질을 고래실마을'에서 시골체험활동을 가졌다. '질을 고래실마을' 체험은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단풍 감상과 '무 뽑기 체험', 배추와 여러 속 재료를 버무려 만드는 '김장담그기 체험', 자연물로 장난감에 도전하는 '자연물 만들기 체험', 나무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씽씽카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배추와 속 재료를 이용한 김치 만들기에 관심이 컸다. 고춧가루, 찹쌀, 마늘, 파 등을 만지고 버무리며 김치를 만들었다. 유아들은 직접 담근 김치를 잘 먹고 어린이집에 돌아와서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서도 가족과 김치 얘기로 자연이 베푼 한상차림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목련반교사 김주은]



▲ 김장 후 보쌈과 함께 김치를 먹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교우들

김장 담그기

11월 4~6일까지 '백동조 목사(목포 사랑의 교회)가 인도하는 추계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새벽과 저녁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15~16일 교회 김장을 담갔습니다.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남·여전도회원이 한마음으로 즐겁게 김장을 마친 후 보쌈도 나누어 먹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새가족 수료자 대상으로 '새 가족 환영회'가 23일 있었습니다. 총 40명의 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내 아웃리치 선교팀 26명은 29일 ~30일 기독교 유적지 탐방의 시간을 통해 복음에 헌신한 선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목사 김문웅]



▲ 깍두기를 담그고 있는 유아들

깍두기 만들기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5 일 조리사와 함께 하는 '가을철 깍두기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평소 음식을 가려 먹던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직접 무를 썰고 절여 양념을 더하면서 깍두기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이 더해져 무가 먹음직한 깍두기로 변해갔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자신이 만든 깍두기라서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직접 맛을 보고 엄마 입에 깍두기를 넣어 주는 등 김치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져 아이들 스스로 변화되는 것 같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맑은 반 교사 고하은]



▲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공연의 한 장면

'우리아빠가 최고야'

지난 9 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뮤지컬 '우리아빠가 최고야'를 580 여명의 부모님과 영유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2 회에 걸쳐 북서울 미술관에서 진행하였다.

'우리아빠가 최고야'는 그림책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인기 뮤지컬이다. 늑대에게 잡혀간 아이를 아빠가 구해주는 과정에서 아빠에 대해 사랑과 존경을 느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영유아들은 신나는 음악과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몰입돼 공연을 맘껏 즐겼다. 공연 속 내용을 통해 아빠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까지 새기게 하는 시간이 됐다.

온 가족이 공연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자녀와 함께 가족 간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다. [보육전문요원 임자혜]



▲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초등연계 강연회

지난 14 일 만 5 세 취학 전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연계 강연회'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다. 강연회는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를 초빙, 취학 전 준비사항과 교육과정 및 질의응답으로 실제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강연회 개최 전에 학부모의 궁금한 사항을 사전 조사 후 이를 반영시켜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날 강연회는 10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학부모들은 "현직 선생님이 하는 교육이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연령별 발달과업에 따라 학부모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소되도록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천해 갈 예정이다.

[온누리반 교사 강혜진]



▲ 김치 담는 과정을 듣고 있는 유아들

'아삭아삭' 건강 김치 요리교실

늘사랑어린이집은 20 일 만 2, 3 세 영유아와 '김장담그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치는 밥상에 매일 오르는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이다. 유산균이 풍부한 전통 음식이지만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낮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김장을 담가 관심을 갖게하고 편식도 예방케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장 체험은 어린이들이 사전교육을 통해 배추 절이기, 김치 양념소 만들기, 양념소 넣기로 진행됐다. 직접 만든 김치는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맛보며 노력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시간도 누릴 수 있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김장을 담그며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임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며 다양한 요리활동 참여가 이뤄지길 희망하였다. [즐거운반 교사 윤영숙]



수학의 계절

지난 21 일 충무어린이집 전체 영유아들은 중부소방서와 함께 하는 소방합동훈련을 가졌다. 소방관 아저씨들이 비상시 대피하는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또 가정에서도 비상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는 요령도 습득하였다. 그동안 충무어린이집 영유아들은 매달 25 일 전후로 소방대피 훈련을 익혀 왔었다. 이날 사이렌이 울리자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은 가리고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소방합동훈련은 영유아들이 소방관 아저씨와 실제 훈련을 하게 돼 긴장감 속에 교육효과를 상승시켜 준다. 불시에 이뤄지는 대피상황 훈련으로 대비가 몸에 익숙해지도록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교사 김자은]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196만원(운영)	남명우(상항서부한인교회 장로)	900달러(운영)
김조자(간호학 교수)	1,000만원(간호발전)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용 대표)	580만원(장학)	차치우(이사)	100만원(운영)
하나금융나눔재단	500만원(장학)	최하나(54회)	100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345만원(운영)	Crawford Sue Hong(이사)	100만원(운영)
경성교회(박종걸 목사)	31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구좌 박예은 재학생 및 가족 3구좌 조대의	15구좌 이한영 삼일성서교회 10구좌 삼일성서교회 서문교회 20구좌 서문교회 중앙성서교회 10구좌 문무열	일반 1구좌 김천수 안애숙 유화실 단체 및 기관 20구좌 (주)소원기건
1구좌 강순성 김승훈 김진하 김춘덕 박수진 성한나 오찬미 유수정 이진주 전아름 조장현 주성현 최상모 한원창 3구좌 권오규 배예진 이현지 정소영 조하은 주인정 탁현정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송명훈 송성은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자은 오은희 오채엽 용아름 우승연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윤솔이 윤영원 윤에서 윤지준 윤혜자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보아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옥희 이용철 이운주 이은실 이은영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주희 이지은 이진경 이진리 이진주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이희윤 인자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심 전다현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태환 조현석 주민자	주영덕 지영환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상모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본 최예슬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원창 한정은 허영숙 허정운 흥금주 흥선호 흥성대 홍애진 흥자영 흥정심 흥선명 황승호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이예람	김지애 김태영 김혜진 나예원 남지원 명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미나 서성숙 설보경 신은숙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이남희 이다운 이안나 이우진 이재국 이주연 이지연 이현지 이혜민 임보나 장영훈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정윤경 정재연 조유진 조은경 진성지 최광희 최소린 최예린 최은희 흥석화 흥예지 황영숙 황예린
5천원 강동란 김샛별 정다운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영규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준자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희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욱 김민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훈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천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준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박경옥 박명우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빈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준애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김경수 김기옥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민정 김복녀 김성균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송 배혜인 백연옥 성남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손화진 송민호 신정섭 신정화 신희영 오상석 오정순 오찬양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광석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상진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준석 이충희 임은희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성종 정온순 정주영 조성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탁명화 하지혜 황보혜영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은애 5만원 길소윤 김연진 김종남 김지원 김진경 김혜선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예은 박지혜 송복순 안선례 오민지 윤보은 전은진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6만원 문지원 정동주 7만원 임연식 10만원 강경옥 김동관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신호정 장명현 11만원 유선미 100만원 최하나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5천원 2만원 3만원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기병문 김민아 김석정 김선경 김양순 김은이 김혜미 박기영 박대중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소연 안양희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동기

기부자 명단



메리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코코스 편집실]